

썸통더위 시작...올해 더 덥고 열대야 많다

광주·전남 장마 끝나자마자
해안지역 제외 폭염주의보
폭염일수 평년보다 많고
평년기온도 1도가량 높아

광주·전남 지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썸통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해안 일부지역(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을 제외한 광주·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하루 최고 기온은 광주(과기원) 31.6도, 나주(다도면) 33도, 장흥(관산읍) 32도, 순천(황전면) 32.2도 등을 기록했다.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나주(다도면) 34도, 보성(북내면) 33.5도, 완도(정산도) 33.5도, 순천 33.3도, 담양(봉산) 33.9도 광주 32.7도 등을 기록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광주·전남에는 앞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이 예측한 올 여름 광주지역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22일)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의 폭염일수는 2016년 31일, 2017년 29일, 2018년 43일 등을 기록했다. 전남 지역도 12~17일로 지난해(14.9)일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예측된다. 올 8~9월 평균기온도 평년(23.8도)보다 0.5~1.5도 높은 25도 수준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나 평균기온과 함께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며 잠을 청하기 힘든 열대야도 지난해보다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전남 일부 지역에 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17~22일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발생한 지역 온열질환자는 40명으로 집계 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4일까지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높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와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낮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전교조 전남지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육부의 무분별한 교원 정원 감축이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교사정원 감축 철회를 교육 당국에 촉구 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3일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계획중인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 철회'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2021학년도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에서 교육부가 전남지역 중등 교원을 최대 224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어 "단순히 학생 수 대비로 교원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논리이자 경제 정책일 뿐이다"며 "기획재정부의 접근방식을 답습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전남은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가 많아 순회, 겸임교사가 배치되어 교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역 '학교 등교 최소화' 2학기부터 완화

등교 제한 인원 3분의 2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 지역에 적용됐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2학기부터 해제·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2학기에도 유지된다면, 등교 제한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그 밖의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학기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광주 지역 학교들은 지역감염 확산세가 거셌던 탓에 지난달 내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전교생의 3분의 1까지만 등교해 왔다. 이처럼 교육부가 2학기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 봄 때보다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변수도 여전하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경우엔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양제철고 내년 일반고 전환 어렵다

전남교육청, 학교측에 통보

전남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고교 조기 전환이 내년에는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양제철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광양제철고는 모기업인 포스코의 법인 전입금 축소로 학교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 취소 계획서를 제출했다. 일반고 전환을 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운영위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고 내년도 입학 일정도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측에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광주시 북구가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30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북구는 '모모가정(募募家庭, 모두의 마음을 모아 만든 정 있는 가족 마을) 프로젝트'로 저출산 극복

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모가정' 프로젝트는 맞벌이나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정보화, 서예, 바둑 등 교육활동을 펼쳐왔으며 중·장년 퇴직자를 아동 돌봄미로 고용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마을강사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더위 시작...지식강 솔밭 피서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2일 나주시 지식강 솔밭유원지를 찾은 피서객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교대, ICT 고도화사업 7억여원 확보...전국 교대 중 최다

정보통신 인프라 단계적 개선
광주교육대학교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전국 교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7억 6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 ICT 인프라 구축계획에 따르면 원적강의와 이에 대한 대학수요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학 교육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디

지탈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립대의 노후화된 ICT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교대는 이에 맞춰 클라우드 구축 중점대학과 5G급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전국 교대 학사통합운영센터 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부족한 자원

에도 학내 ICT 인프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ICT기반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해졌다"며 "5G급 수준의 고속전선망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보화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거점센터 지정 희귀질환 빅데이터 구축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센터가 최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광주·전남권역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희귀질환자 모집(데이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희귀질환자의 임상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국가사업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6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희귀질환자의 모집이다. 조건에 맞는 희귀질환 환자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향후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꼼꼼하게 선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특히 희귀 혈액질환과 희귀 면역결핍질환의 진단과 치료, 우수한 연구 등으로 국내외의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희귀질환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오고 있다. 국훈 센터장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운 희귀질환일지라도, 임상과 유전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면 치료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희귀질환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